활동지 : 좀 더 길게

* 활동지 내용을 직접 적어봤습니다.
* 버리고 싶은 기억, 공감되었던 장면, 감정들을 직접 써보면서 본인의 감정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고,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질문 들을 준비했습니다.
* 이 활동을 통해 연극을 만들 바탕이 됩니다.

연극 : 감정이는 예시고 자신이 직접

* 대학생활에서 가장 겪기 쉬운 감정들입니다.
* 팀플레이에서 다들 팀원이 제대로 활동 안 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?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슬픔이, 누군가는 버럭이, 누군가는 까칠이가 되어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연극을 통해 표현합니다.
* 두 번째 주제는 짝사랑을 하는 주인공이 되 보는 겁니다. 다들 누군가를 사랑해본 경험이 있으신 가요?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든 사랑을 경험해 봤을 것이라 생각하는데, 여기서도 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는 상황을 가져왔습니다.
* 사랑하는 상황에서 그저 기쁜 기쁨이와, 그럼에도 고백할 두려움에 잡아먹힌 소심이, 아무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한 버럭이처럼 각 조원이 자신이 연기하고 싶은 감정이 되어 연기하는 것입니다.